

■ 연구원 소식

○ 오항녕 회원 도서 발간

: 『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 『조선의 힘』, 『밀양 인디언, 역사가 말할 때』, 『기록한다는 것』, 『한국사관제도성립사』, 『조선초기 성리학과 역사학』 등을 저술한 우리 연구원 오항녕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 또 한권의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기축옥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 송강 정철! 그리고 징비록으로 잘 알려진 서애 유성룡! 이 두 인물을 둘러싼 기축옥사 담당 위관 논쟁! 둘중 누가 당시 위관이었는가를 추적하는 과정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는 기회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연구원 부설연구소(글로벌 휴머니티 소사이어티) 개소식 안내

: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부설연구소(글로벌 휴머니티 소사이어티)의 개소식이 다음달 6월 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5. 06. 06(토) 16시
- 장소 : 글로벌 아카데미(서울 대림동 살레지오 수도원 내)

■ 금주 연구원 주간일정

[2015년]

- 05월 18일 : 주간회의
- 05월 19일 : 중앙공무원 연수원 답사팀 방문
- 05월 20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5월 21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5월 22일 : 도서 DB기반 구축

■ 역사속의 오늘

○ 다만 詩로라도... 五 月 光 州...

그 날 (정민경)

나가 자전거 끌고잉 출근하고 있었시아

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딱 하니 뒤에 올라 타블더라고. 난 뉘요 했더니, 고 어린 놈이 같이 좀 갑시다 허잖어. 가잔께 갔재. 가다본께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 같어. 그래서 멈춰재.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갑시다 갑시다 그라데. 아까부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한테 말을 놓는거이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불라고 뒤엘 봤시아. 근디 눈물 반 콧물 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쪽에 총구녕이 먼저 보데.

총구녕이 점점 가까이와. 아따 지금 생각허도..... 그땐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아. 그때 나가 떠건지 나 옷자락 붙든 고놈이 떠건지 암튼 겁나 떨어볼데. 고놈이 목이 다 쇠갓고 갑시다 갑시다 그라는데잉 발이 안떨어져브냐. 총구녕이 날 쿡 찢러. 무슨 관계요? 하는디 말이 안나와.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랑께. 아깐 떨어지도 았던 나 입에서 아시오 요 말이 딱 나오데.

고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재. 심장이 쿵쿵쿵쿵 허더라고.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 그자서 뒤를 본께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 있데. 어린놈이.....

그라고 보내놓고 나가 테레비도 안보고야, 라디오도 안틀었시아.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누가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

아직꺼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

(위 글은 2007년 5.18민중항쟁기념 제 3회 서울 청소년 백일장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당시 경기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정민경씨의 시입니다.)

학살 2 (김남주)

오월 어느날이었다 80년 오월 어느날이었다 광주 80년 오월 어느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대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오월 어느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날 낮이었다
낮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이민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민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군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낮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낮 12시였던가
오월 어느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별집처럼 쭈셔놓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물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오월 어느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날 낮이었다
낮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낮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올려 얼굴을 가려 버렸다
낮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뒀다
아 게르니카의 학살도 이리 처참하지는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리 치밀하지는 않았으리

○ 헌법기관을 겁박한 공수부대 - 1964. 5. 21

: 민정 이양 이후 박정희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졸속적인 한일회담이 추진되던 1964년 5월 20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한일굴욕외교반대 학생총연합회 주최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 라는 시위에서 “시체여 너는 오래전에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낫 없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김지하의 조시가 낭독되었고 경찰은 180여명의 시민과 학생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그런데 당일 영장 담당 양헌 판사는 대다수 피의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상식에 근거 영장을 기각한다. “돌을 던지지 않았다.” 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 보라.” 고 올렸던 조서 앞에서 당연한 결과였다.

사단은 다음날 새벽 터졌다. 서울 서소문 법원 청사에 군용구급차 한 대가 들이닥쳤다. 권총과 소총, 수류탄으로 무장한 13명의 공수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법원 수위에게 당직 판사를 내놓으라고 올렸고 퇴근한 것을 알게 되자 동소문동 돈암초등학교 옆에 있던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데모학생들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 다그치며 영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양헌 판사가 “자연인으로서의 한 개인이지만 영장에 서명할 때는 엄연한 헌법기관” 이라며 영장발부를 거부하자 급기야 수류탄을 꺼내들고 “우린 돌아가도 죽으니 여기서 자폭하겠다” 는 협박까지 자행하였다. 황해도 해주태생으로 해주중학교 졸업 후 18세에 월남하여 경기도청 주사로 근무하다 독학으로 고시에 합격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던 그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임을 강요하며 영장에 서명하라고 겁박한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 공수부대원들이었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민복기에게 대통령 박정희가 “그런 법관을 그냥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1991. 5. 24 동아일보 인터뷰 중)

정권은 그를 공언한대로 가만히 두지 않았고 결국 1973년 재임용탈락으로 판사직에서 물러났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 판단에 대한 겁박.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의 또 다른 장이었다.